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긴급조치9호 - 악연에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의 딱지로



장 정 수_ 서강대 사학과 76학번. 도서출판 한울 편집장, 비즈니스코리아 차장, 아시아위크 서울특파원,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기획위원(현)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9호와 관련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다. 선뜻 맘이 내키지 않았다. 특별히 나에게 회고할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문국주 선배께 전화를 걸어 선배의 생각을 물었다. 문 선배는 “무슨 소리냐. 제대로 된 기록이라도 남겨야 후세에서 그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아니냐”고 질책조로 말했다. 이에 마음을 바꿔 쓰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30년 전의 기억을 복원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기억 퍼즐 맞추기 게임이었다.

나와 긴급조치9호와의 악연은 1977년 11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강대 사학과 2학년이었던 나는 그날 ‘황토’라는 지하서클 멤버인 한승동(사학 2, 한겨레신문 문화부 부장급 기자), 김용진(국문 2), 임영준(물리 2) 등 4명과 함께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서강 선언문’ 2천여 장을 강의실에서 배포한 뒤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시작되자마자 경찰 수 천 명이 교내에 들어와 진입하는 바람에 불과 몇 분도 못 가서 해산되고 말았다. 한승동과 임영준은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나는 이날 사전에 정한 시각에 내가 맡은 강의실에서

일어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때 사학과 조교들 및 선배들이 그 강의실로 우르르 몰려와 나를 제지했다. 어떤 선배는 울면서 제발 그만두고 나가자고 호소했다. 나는 선배들의 행동이 내가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을 뿌리치고 교정으로 나갔을 때 이미 로마병정처럼 무장한 시위진압 경찰이 교내로 진입해 캠퍼스 안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의 시위 계획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이날 시위는 1주일 사이에 서강대에서 일어난 세 번째 유신철폐 시위였다. 그해 가을부터 대학가에서 유신철폐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한 대학에서 3회 연속 시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서강대에서 반독재투쟁 열기는 뜨겁게 고조되고 있었다.

연쇄시위의 시작은 6일 전인 11월 12일이었다. 시위는 다분히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날 오후 4시쯤 연세대 캠퍼스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연세대생들 중 1백여 명이 신촌 로타리로 진출해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전투경찰에 쫓겨 서강대 교내로 도망쳐 왔다. 전투경찰은 서강대 교내의 대운동장으로 진입해 이들을 잡기 시작했다. 일부 연세대생들은 마침 그 때 운동장에서 교련 수업 중이던 서강대 3학년생 대열로 숨어들었다. 경찰은 이들을 잡으려고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경찰의 거친 행동은 학생들을 크게 격분시켰다. 흥분한 학생들이 경찰들을 잡아 구타하거나 진압장비를 빼앗는 등 분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위로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는 스크럼을 짜고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다. 시위가 끝난 뒤 주동자였던 이효율(물리3, 풀무원 상무), 이순범(화학3), 박태율(경영3)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내 분위기는 술렁거렸다. 이를 뒤인 14일 체포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군 복학생인 유재현(철학 2)이 구속됐다.

‘황토’는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첫날 시위가 끝난 뒤 ‘황토’ 멤버들은 저녁에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의 시위사태를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시위는 김윤(영문4, 민청학련 사건 때 구속된 유일한 여학생, 2003년 작고) 선배와 권오성(전자공학4, 역시 민청학련 사건 때 구속된 뒤 석방, 현재 수도 교회 담임 목사) 선배가 75년 긴급조치9호 발동 직후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자유서강’을 살포하다 구속된 사건 이후 서강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정부 시위였다.

우리는 두 번의 연쇄시위에 크게 고무됐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서강대 특유의 ‘면학 분위기’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번의 시위는 우리들에게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흥분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두 번의 연쇄시위 주동자들은 교내 지하이념서클 회원들이 아니라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장들이거나 군 복학생이었던 유재현 선배처럼 불의에 대한 정의감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시위를 주동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도덕적 의무감을 강하게 느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임으로써 그해 가을 대학가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유신철폐 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위를 결론을 내렸다. 당시 황토 1기는 여학생을 포함해 10여 명이었는데 일단 나를 포함한 4명이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 4인은 철저한 보안속에서 시위준비에 착수했다. 디-데이는 11월 18일로 잡았다. 나는 이 사실을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선택(경제2) 선배에게 알렸다. 김 선배는 시위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황토2기가 문제였다. 2기를 선발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2기는 믿을 만한 1학년들 중에서 6, 7명을 선발해 나름대로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문과대 1학년들로 지적 능력과 품성 등의 자질 면에서 믿음직한 후배들이었다. 박찬교(사학, 충주에서 농업), 부좌현(국문, 천정배 의원 보좌관), 임지현(사학, 한양대 사학과 교수) 이제환(사학), 문재철(사학, 전 KBS 워싱턴 특파원) 등이었다. 곧 감옥으로 가게 될 우리들은 1기 멤버들에게 후배들의 문제를 일임하는 수밖에 없었다. 디-데이 전날 우리는 2기들과의 고별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흔들림 없이 조직을 잘 꾸려갈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선배들 4명이 감옥으로 간 뒤 2기들은 한동안 충격과 침울 속에 빠져 있던 것 같았다. 후배들은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출감했을 때 황토는 이미 해체되고 존재하지 않았다. 몇몇 후배들과 만났을 때 이들은 선배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 뒤 우리 4명이 겪어야 했던 수난은 불과 5분도 안되는 교내 시위의 대가치고는 혹독했

다. 우리 4명은 약 2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구치소에 가서는 감방이 부족할 정도로 구속된 민주인사들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고 또 위안이 됐다. 이들의 존재는 반독재 투쟁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점을 나에게 강하게 일깨워 주었다.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다. 공소장을 받고 나서 나는 긴급조치9호가 그렇게 황당한 ‘법아닌 법’인지 처음 알았다. 불법 시위는 몇 조 몇 항 위반이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한 것은 또 몇 조 몇 항 위반이고, 유인물을 살포한 것은 어찌구저찌구... 법정에서 검사와 당당히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유신헌법의 독소적 조항 등 반민주적 측면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헌법학 책도 넣어 달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급작스럽게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오는 바람에 나는 법정투쟁에 대해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때 김병곤 선배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민청학련 사건 재판 때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영광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는 신화의 주인공 김병곤 선배는 내가 있는 사동 뒤쪽 사동의 독방에 수용돼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선배가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배는 당시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반체제 인사 중 거물급에 속했다. 당시 벌써 별이 세 개(세 번째 구속)였다. 나는 선배에게 통방(화장실 창문을 통해 얘기하는 것)을 통해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선배는 유신헌법의 반민주적 성격을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전망과 징역살이의 노우하우 등 ‘감방선배’답게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다. 선배에게서는 권위적인 체취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선배는 자신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다. 정말 맑고 따뜻한 영혼을 지닌 투사였다. 또 강철 같은 신념과 불같은 정열을 지닌 혁명가였다. 거듭되는 투옥생활로 인한 병마는 그를 너무도 일찍 저 세상으로 갔다. 지금도 나는 굵은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던 선배의 해맑은 모습이 그립다.

가장 기억나는 일은 리영희 선생님과 만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영희 선생님과 나는 서울구치소 감방동기생이었다. 나는 77년 12월 초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청으로 이송돼 담당 검사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반 사범들 중에서 깨끗한 자세로 앉아 있

는 한 중년의 인물을 발견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다. 바로 리영희 선생님이었다. '전환시대의 논리'를 통해 지적인 전율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분을 뵈게 된 것이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다. 나는 선생님께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위를 들었다(2주일에 걸친 도주와 검찰 조사 때문에 이 선생님의 구속을 알지 못했다). 선생님은 검찰에 송치돼 검사의 호출을 기다리고 계시던 중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선생님을 여러 차례 스쳐갈 기회가 있었다. 수감 중 선생님은 악화된 건강 때문에 고생하셨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선생님은 별 때마다 항상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다. 선생님을 또 뵈게 된 것은 한겨레신문사에 들어가서였다. 선생님께서도 서울구치소에서의 만남을 기억하고 계셨다. 89년 5월 창간됐을 때 선생님은 그 주역 중의 한 분이셨다. 5월15일 양평동의 허름한 사옥에 설치된 운전기에서 창간호가 나왔을 때 눈시울을 적시고 계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79년 석방되기 전에 생활했던 광주교도소의 생활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곳은 정치범들의 해방구이자 공동체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남지역의 대학생들을 비롯해 재야인사, 지식인, 종교인 등 긴급조치9호 위반자들이 특별사동(특사라고 불렀다)에서 약 1백 명 넘게 수용돼 있었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들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들도 수십 명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정치범이나 사상범의 경우 하루에 한 20분 정도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하는 것을 말고는 감방에서 생활하게 돼있다. 하지만 특사의 경우 수행자들이 낮 시간에는 거의 특사 운동장에서 팀을 짜 찰떡(맨손야구)을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 비전향 장기수들도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송기숙 교수님은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셨다. 송 교수님은 이영희 선생님이 1주일 뒤에 그곳으로 이감 온다는 정보를 들은 뒤 이 선생님이 쓰게 될 감방의 화장실(똥간)을 비롯 감방 내부를 손수 깨끗이 청소하기도 할 정도로 따뜻한 동지애를 보여주었다.

전주 교도소에서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전주교도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비전향 장기수들만을 수용하는 특별사동이 있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는

비전향 장기수 10여 명 외에도 전창일, 이창복, 유진근, 김종대 씨 등 인혁당 관련자 8명도 함께 있었다. 나는 인혁당 관련자들이 75년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의 희생자들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1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그분들은 무기에서 20년, 15년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4년째 복역 중이었다. 대부분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겪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한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고생을 하고 있었다.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운동하는 시간에 비전향 장기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복역기간이 20년이 넘었다. 어떤 분은 27년째 복역 중이라고 했다. 27년! 내가 당시 스물세 살이었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감방에서 갇혀 있었다는 얘기였다. 1년밖에 안 지난 나도 감방생활이 견디기 힘든데 27년 동안이라니...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고 시간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도대체 그들을 27년씩이나 신념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또 어떻게 한 인간을 27년씩이나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는지... 그것은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이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김선명이란 비전향 장기수는 43년 10개월 간 복역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감옥에서 복역한 기록을 세웠다.

한 장기수와 목욕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그의 넓적다리와 팔은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넓적다리와 팔의 굵기가 거의 비슷했다. 그 참혹한 몰골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신념은 바로 목숨과 마찬가지로였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에 대한 교도소의 전향공작은 중단되었다. 긴급조치9호 위반자들이 전향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 등의 방식으로 거세게 저항한 데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향공작에 따른 고문으로 더이상 몸이 견디기 힘든 극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감방에서 자살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비전향 장기수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신념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

만 자기가 믿는 신념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들의 행동에서 뜨거운 동지애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태우 정권 때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씨와의 만남도 잊을 수 없다.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긴급조치9호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민주인사들은 3.1절, 4.19, 광복절 등과 같은 날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박정권 타도' '유신헌법 철폐' '민주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치소 내 시위'를 벌였다. 단식투쟁도 병행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점차 횡수가 늘어나니까 가담자들에 대해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를 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추가기소 건의 담당검사가 바로 박철언 씨였다. 그는 자신만 만하고 엘리트의식에 가득 찬 검사였다. 그는 나에게 "너희들이 독재, 독재하는데 정말 독재 정권이면 독재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느냐. 세계 어디에 독재정권타도를 외치는 놈들을 살려주는 독재정권이 있느냐"고 말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한국역사에 언제 이렇게 잘산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를 해도 배부르게 해주면 좋은 것 아니냐. 구치소에서 조용히 반성하고 지내지는 못 할망정 자꾸 말썽을 피우냐. 너희가 떠든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아느냐"

나는 오기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지금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는 모양인데 결코 오래 못 가서 망할 것이다."

그를 만나고 온 다음날 새벽 갑자기 교도관이 감방 문을 열더니 짐을 꾸리라고 했다. 지방 교도소 이감 지휘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박 검사의 보복이 분명했다.

세월이 흘러 90년대 초 한겨레신문사의 정치부 기자로서 일하면서 민자당을 출입하게 됐다. 그때 박철언 씨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떠오르는 태양'으로 불리면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차기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주로 김영삼 대표가 이끄는 민주계를 담당했지만 박철언 씨도 만나는 일이 이따금 씩 있었다. 나는 기회를 엿보다 박씨와 단 둘이 있을 때 추가기소 때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그 뒤 그와 나는 무덤덤하게 지냈다.

서울구치소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의료 사고였다. 나는 서울구치소에서 있으면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양 발톱 주변의 피부에서 진물이

나는 등 심하게 굵아 걷기가 힘들어졌다. 움직이면 발톱이 굵은 살 부위를 찢러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사로 가서 일 주일에 한번 오는 민간인 의사에게 상처부위를 보였더니 발톱을 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술날짜에 병사로 갔다. 하지만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먼저 간병(기결수로서 병원의 간호사격)이 발가락 주위에 마취주사를 놓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마취상태에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았다. 간병이 뭐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려는데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내 스스로도 말을 심하게 더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약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말이 가능했다. 내가 깨어난 것은 마취상태에 빠진 뒤 4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다. 간병이 부분마취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잘못해 전신마취제를 놓았던 것이다. 그것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병이 전신마취주사를 한쪽 발가락에 놓은 뒤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발가락에 마취주사를 놓지 않아서 망정이지 다 났다면 나는 아마도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을지도 모른다.

박정희 독재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긴급조치9호는 악령처럼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많은 긴조 선배들이 겪었던 것처럼 나 역시 시위 전력 때문에 결혼 뒤 취직했던 첫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고교 독일어 교사였던 아내도 나의 전력이 문제가 돼 교사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긴조 딱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해외취재를 나가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반드시 2주일 정도 발급이 지연됐다. 일반인은 신원 조사가 자동으로 떨어지지만 긴조 세대들은 안기부 또는 국정원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관행처럼 계속됐다. 권력을 잡는 것만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긴급조치9호의 시대가 79년 10월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사살로 막을 내린 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변하고 또 변했다. 나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했다.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는 혼돈의 세월도 겪었다. 하지만 이런 변절과 영달이 난무하는 흙탕물 속에서도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때 내걸었던 깃발을 바꾸지 않고, 소처럼 우직하게 서 있는 동지들의 모습에서 나는 감동을 느낀다.

결국 역사의 발전은 이처럼 세상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30년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깨

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는 정지하고 때로는 뒷걸음질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이다. 박정희의 5.16쿠데타, 삼선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 10.26, 12.12, 5.17쿠데타, 5.18광주 민주화 항쟁, 87년 6월항쟁, 2001 평양정상회담... 독재 권력은 무한계도를 질주하고 역사는 뒷걸음질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부도덕한 권력은 파멸하고 정의가 승리했다. 역사는 한걸음씩 한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다.

1979년 서울대 지하신문 사건의 전후



한 철 희_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76학번, 돌베개 대표(현)

1979년 전반기의 상황과 지하신문의 구상

1979년이 되면서 유신체제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된다. 그러나 79년 전반기만 해도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다. 중앙정보부는 4월 초 크리스찬 이카데미사건을 발표하며 수십 명의 민주인사를 구속하는 등 유신정권의 폭압은 극에 달했다.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은 일시적인 침체와 소강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둠의 긴 터널이 이어질 뿐 출구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상황의 암울함은 무력감을 주기도 하지만 실천의 절박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4학년이 된 나는 3학년 2학기 이래로 싸안고 있던 해묵은 고민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3학년 여름에 모종의 사건으로 관악경찰서에 잡혀가 보름 정도 조사받은 뒤 유기정학을 맞은 일이 있었다. 그 이후 약간의 슬럼프 상태에 빠지면서 자신의 진로문제를 꽤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막연한 고민에 휩싸여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했으며 4학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었다.